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2019

# 광주의 가을은 '휴머니티'

9월7일~10월31일 비엔날레전시관 등 5개 본전시 4개 특별전 눈길



키스미클로스의 'Ball Room'

'사람 사는 세상, 따뜻하게 만드는 디자인.'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 현대 디자인의 역할은 사회문제와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실현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이번 전시 컨셉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탐색하도록 구성됐다.

7일 공식 개막을 앞두고 5일 프레스 오픈을 통해 먼저 공개된 올 디자인비엔날레는 기존의 전시에 비해 관람객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올해 행사 주제인 '휴머니티'를 표현한 '주제관' 1갤러리에는 임팩트가 강한 4작품을 선보였다. 다양한 영상이 흐르는 20여m 길이 강이연 작가의 '자각몽'을 통해 전시장으로 들어선 관객은 평창올림픽 오프닝 연출을 맡은 '닷말'의 정인 작가가 미디어 맵핑을 통해 구현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만났다.

아마도 관객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작품은 키스미클로스의 'Ball Room'일 듯하다. 현대인의 감정을 대변하는 이모티콘을 노란 '공'이라는 물체를 통해 구현한 작품으로 관람객들은 작가가 이번 비엔날레를 위해 특별 제작한 13가지 표정의 디자인 스티커를 부착한 뒤 대형 공 앞에서 사진을 찍고 2000여개로 구성된 '볼룸'에는 직접 들어가 볼 수도 있다. 또 네덜란드 디자이너 단 루스가르데의 'Lotus Dome'은 인간의 열과 빛에 반응하는 '돔'으로 관람객들이 손을 뻗어 온기를 더하면 빛을 밝히며 조금씩 꽃을 피웠다.

'국제관'으로 꾸며진 2갤러리는 올해 100주년을 맞은 세계 근대 디자인의 근간 '바우하우스'를 조명한 전시다. 바우하우스 건축 축소 모형과 함께 바우하우스 정신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의자와 테이블, 조명 세트 등이 관심을 모았으며 바우하우스 학교를 직접 촬영한 김희원 작가의 영상 작업도 차분히 볼 만하다.

이 전시를 흥미롭게 만든 건 바우하우스 정신을 자신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14명(팀)의 작품들이다. 노래방 형식을 차용한 슬기와 민의 작품을 비롯해 색다른 한글 타이포 그래피 등이 인상적이었다. 또 한국, 일본, 독일 등 22개의 공동 생활 프로젝트 모형은 통해 우리 사회 공동체 주거와 공공 공간에 대한 디자인

의 역할을 소개한 섹션으로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아티스트 범민의 그래피티 작품으로 시작되는 3갤러리 '기업관'은 사람과 사회, 사람과 환경을 연결하는 기술을 만나는 섹션이다. 백열전구를 생산하던 일광전구의 대형 기계, 스피커도 예술의 될 수 있음을 보여준 'NAPAL 3', 스티브 잡스로 대변되는 애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섹션, 상상력 넘치는



광주비엔날레 광장에 들어선 상징조형물 'Urban Bloom'

디자인의 세계를 보여준 기아 디자인웍스의 공간도 천천히 둘러볼 만하다.

4갤러리에 조성된 '휴먼시티'는 인간의 삶과 연관된 공간들을 놀이터처럼 꾸며 관람객의 참여도를 높였다. 1인가구, 고령 인구를 위한 생활 공간을 보여주는 '살터'를 비롯해 거리, 배움터, 장터, 광장 등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디자인비엔날레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돼온 지역 결합과 산업화를 구현한 마지막 5갤러리는 광주 디자인의 현주소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 지역 대학이 직접 참여해 광주 뷰티산업과 디자인의 접점을 찾는 프로젝트 결과물과 세계적인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멘디니와의 협업 상품 디자인 등이 눈길을 끌었다.

다양한 특별전도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30여개국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2019광주디자인



비엔날레 국제포스터초대전'과 골드스미스 런던대학교, 파리장식미술학교 등이 참여한 '국제디자인 대학 특별전'이 열린다. 또 전당 인근 은암미술관에서는 25개국 50여명의 디자이너가 작품을 전시하는 '한반도 평화통일국가국제디자인전'이 열리며 광주디자인센터에서는 지금까지 열린 7차례 디자인비엔날레의 변천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아카이브전'과 'DIVE INTO LIGHT' 전도 관람객을 만난다.

그밖에 6~8일에는 '모두를 위한 따뜻한 디자인'을 주제로 국제통합학술회가 열리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크 버스킹',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광주리(RE) 플라마켓, 공예·인쇄 상품 스토어도 운영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관람안내

일시  
2019년 9월7일~10월31일

장소  
광주비엔날레전시관(본전시·휴관없음)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제세계포스터초대전, 국제디자인대학 특별전·월요일 휴관)  
광주디자인센터(광주디자인비엔날레 아카이브전, DIVE INTO LIGHT전·휴관없음)

은암미술관(한반도평화통일국가디자인전·공휴일 휴관)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5시 매표 마감)

입장료  
일반 1만3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4000원, 비엔날레전시관 외 무료 관람

도슨트 설명  
· 오전 10시, 11시, 오후 2시, 3시, 4시 총 5회 운영  
· 소요시간: 60분~90분  
· 사전예약 필수(당일 예약 불가), 20명 이상 단체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gdb3@gdc.or.kr  
· 문의처 : 062-611-5151 / 062-529-9813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이길형 총감독

### "사람 중심 디자인의 중요성 알리고 싶어"

"디자인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나와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작품을 통해 모색해 보는 기회입니다. 디자인이 인간의 일상적 삶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그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죠. 무엇보다 관람객들이 전시작품을 만지고, 또 조성된 '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디자인 놀이터'처럼 꾸며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이길형 총감독(홍익대 광고디자인학과 교수)은 "올해 행사 주제인 '휴머니티(HUMANITY)'처럼 이번 디자인비엔날레가 사람 중심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류애를 실천하는 비전을 찾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해 비엔날레에서 주목할 만한 전시는 '사람을 노래하다'를 테마로 삼은 1갤러리 '주제관'과 탄생 100년을 맞은 바우하우스의 역사를 조명한 2갤러리 '국제전'이다.

"올해 전시는 주제인 휴머니티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설명보다는 체험과 시각적 해석을 강조했어요. 전시장 초입에 관람객들이 직접 미디어 작품의 주인공이 되는 설치 작품을 '터널식'으로 구현한 작품을 배치했고 시대적 아이콘이 된 '이모티콘'을 활용한 키스미클로스 작품이나 사람의 온기로 대형

연꽃이 피어나는 단 루스가르데의 작품은 나의 따뜻한 온기가 상대에게 전달되는 감성적 체험이 가능하죠. 올해는 바우하우스 탄생 100주년이라 지난해부터 전 세계에서 관련 전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광주에서도 바우하우스의 철학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를 소개할 수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비엔날레가 많은 사람이 관람하는 대규모 행사를 감안, 전문성과 함께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대중성도 놓지 않으려 했다.

"4 갤러리에 '가상의 휴먼 디자인 시티'를 구현했어요. 쉽 개념이기도 하고, 배움과 체험의 공간이죠. 이곳에서 다양한 디자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의 삶과 함께 최근에는 도시 환경·주거환경이 중요하데 2갤러리에서 만나는 스위스지브라뮤지엄과 협업 전시가 그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줄지모르겠습니다. 또 비엔날레광장에 조성된 인공 정원 등 상징조형물도 관람객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광주 출신인 이 감독은 홍익대학교 응용미술과 대학원 광고홍보과를 졸업했으며 국내 27개 디자인 관련 단체가 모인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특별 월 회원 모집**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 클럽**

개인 (월) ₩ 300,000

회원특전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 10% 할인
- 객실 이용시 ..... 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